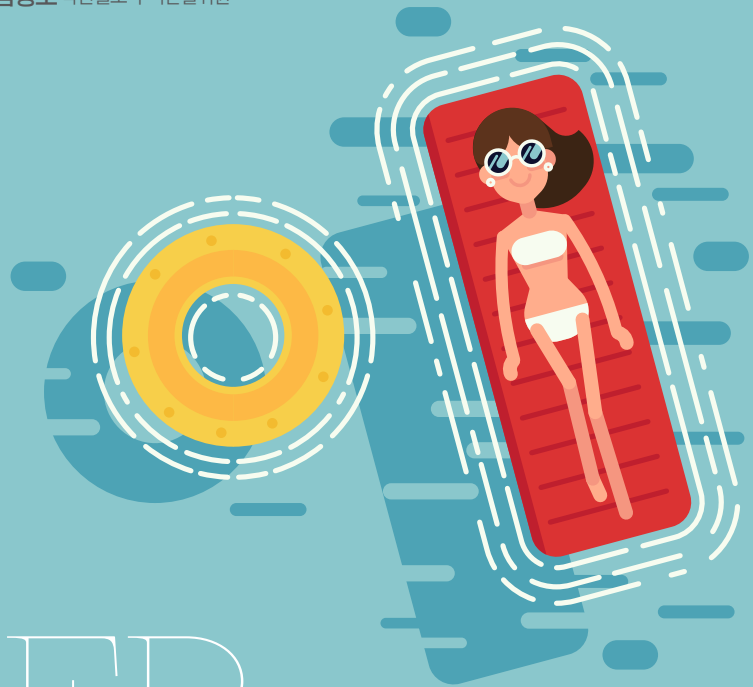


# 그래도 폭염은 지나간다



## SUMMER

올해 입추(立秋)는 8월 7일입니다. 보름마다 바뀌는 24절기 중 열세 번째인데, 열두 번째가 대서(大暑)였습니다. 대서는 절기상 더위의 절정입니다. 바위도 녹일 듯한 기세의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지만 바로 입추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보면 절정 뒤의 반전은 자연의 섭리인가 봅니다.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도 바로 보름 뒤에 입춘(立春)에 자리를 내줍니다. 절기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사의 이치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러 번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새벽까지 아열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들 입추가 지나면 그 폭염도 시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추 다음이 처서(處暑)인데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던 모기가 힘이 빠질 정도로 선선히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아침저녁의 선선히름이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추에 들어서면 양지바른 곳에 살랑살랑 불어대는 이른 봄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입추와 입

춘은 폭염과 혹한 속을 지나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폭염의 와중에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발췌본·까지)>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로 그 책입니다. 회고록이니 자신의 관점에서, 승자의 관점에서 쓴 것이니 낯설고 선입관을 갖고 책장을 열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가 파시즘에 무릎 꿇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내려야만 했던 고독한 결정들 그리고 고뇌와 책임감, 회한... 단순 회고록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책이었습니다.

처칠은 5,0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2차 대전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기만 전술도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1차 대전 승전국 지도자들이 막연한 평화주의에 편향돼 안일하게 대처, 막을 수도 있었던 몇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인류를 대참사로 몰아넣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처칠은 당시 막강한 독일의 무력에 대한 공포감을 숨기지 않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수상 취임 직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와 노고와 눈물과 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그 유명한 하원 연설로 스스로 공포심을 이겨내고 거국적 단합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참혹한 독일의 런던 공습과 대서양 봉쇄를 이겨내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었으나 국민은 1945년 선거에서 전쟁 영웅을 외면합니다. 보수당은 선거에서 지고 처칠은 수상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역사는 어느 개인, 어느 세력의 절정과 영광을 시샘하는가 봅니다. ‘반전의 법칙’이 끊임 없이 반복되는 서사(敍事) 아닌가 싶습니다. 차면 기울고, 열흘 붉은 꽃 없다(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는 옛말은 역시 현실에서도 정확히 작동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어지러운 정치·사회적 사건들도 돌이켜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서와 입추, 대한과 입춘. 우리네 절기가 팍팍한 환경에 둘러싸인 인간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견디고 난 이후에 올 것만 같은 달콤한 반전을 기다린다면, 폭염도 여유 있게 봐주면서 더불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